알파늑대, 스스로 입 다무는 우두머리

(여호수아 12:1~24)

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 강까지이며
3.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벧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4.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5.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6.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기까지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승리한 전쟁에서 죽인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북부 순서로 점령해 들어갔을 때 진멸하여 죽인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왕의 이름이 가득 찬 본문을 가지고 <알파늑대, 스스로 입 다무는 우두머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알파늑대, 스스로 입 다무는 우두머리’

알파메일(Alpha Male)은 늑대 집단에서 우두머리 늑대를 뜻합니다. 집단을 이루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학자들이 알파, 베타, 오메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알파는 최고 우두머리를 말하고, 베타는 2인자로 알파가 죽으면 그 뒤를 잇게 되고, 오메가는 그 집단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일컫습니다. 이 알파늑대는 무리를 굶기지 않고, 언제나 무리의 앞장서서 달려가고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엄과 권위로 무리를 이끈다고 합니다. 무리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알파늑대를 따른다고 하는데 참 이상적인 사회 형태입니다. 결국 알파늑대는 자신의 늑대무리를 번영과 평화의 이상적인 환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매진을 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왕)의 이미지와 흡사합니다.

‘우두머리’는 사물의 맨 꼭대기를 일컫기도 하고, 사회계층의 가장 꼭대기 으뜸에 있는 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의 우두머리는 왕이고 늑대사회의 우두머리는 알파늑대인데, 인간사회의 왕과 알파늑대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런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알파늑대도 제대로 된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과 늑대의 우두머리 사이의 가장 큰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입 다물게 하고 싶을 때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왕의 우두머리 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조용히 하라’는 한마디 명령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조용히 하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왕입니다. ‘상감마마 납시오!’라고 하면 왁자지껄 떠들던 궁정 안에 신하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제자리로 찾아들어갑니다. 또한 ‘어명이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임금의 말 속에는 ‘조용히 하라’는 외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할 것이고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이니 ‘조용히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세상의 우두머리인 왕입니다. 왕은 나라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왕을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 없고, 왕은 그 어떤 자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알파늑대는 자기를 따르는 늑대무리들을 조용히 시키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절대 자기들의 소리로 나타내는 신호체계 안에서 소리로 짖으며 ‘조용히 하라’는 뜻을 담은 명령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입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하들이 그 알파늑대를 보면서 다 입을 다뭅니다.

사람들이 개를 키울 때에도 이런 행동 양식의 차이가 아주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개도 늑대와 같은 성향이 있는데 사람은 개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명령을 합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개는 주인이 ‘조용히 하라’고 인상 쓰고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을 관찰하며 그렇게 짖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는 짖으라고 해서 짖는데 자꾸 때리려고 하며 인상을 쓰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늑대 하면 ‘야비한 약탈자, 잔인한 포획자’라는 고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때에 내몽고 지역으로 중국 사람을 이주시키며 무차별적으로 늑대를 제거했습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초원 위에 순록과 쥐들이 번식을 해서, 풀뿌리까지 몽땅 먹어치워서 내몽고가 사막화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생태계 교란으로 황폐화 되어가던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늑대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더니 먹이사슬의 교정으로 생태계가 회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입을 다무는 우두머리에 이끌림을 받는 늑대 무리가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늑대의 침묵과 먹이사슬의 교정으로 인한 생태계 회생은 학술적으로 증명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늑대와 연관된 요소들을 묶어서, 침묵하는 알파늑대가 무리를 이끌면서 생태계를 살린다는 표현을 해봅니다.

이 우두머리가 심각하게 조심스러운 단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며 개입하시는 영역 안에서의 우두머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내 가정과 회사,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현장에서의 우두머리가 취해야하는 덕목이 바로 알파늑대처럼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는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우두머리 자리에서 우두머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알파늑대와 같이 입 다물기입니다. 요1: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지은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 왕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만물은 조용한 가운데에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의 삼라만상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섭리되어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왁자지껄 시끄러워졌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과 우두머리의 특성이고 본능인데 내가 말을 하므로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자가 나 자신이고 말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고,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역에서 '조용히 하라'는 외침은 무서운 것입니다.

말단 직원도 회사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기만 하다가, 자기만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결정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섞여있는 사회가 아니라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는 자이지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는 나입니다. 나의 결정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는 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조용히 하라'는 우두머리적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왜 왕의 이름만을 33명씩이나 나열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소위 가나안 정복역사의 개괄을 위해서, 정복역사를 개괄하는 목적은 가나안 정복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아니면 가나안 정복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왕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심판의 의미를 담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겼다고 하는 관점에서만 우리를 이스라엘과 동일시 할 게 아니라, 멸

족당하는 가나안 족속과도 동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땅이고, 이스라엘 집단은 하나님을 우두머리로 받드는 집단입니다. 인간세상에서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 하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시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특성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에서는 생존을 허락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므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들의 이름만을 나열하는 이유는, 왕의 이름을 하나 대고 '이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다'고 31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28: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여는 이유는 '잠잠하신 하나님의 입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시37: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 시62: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 출14:1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는 외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내 입으로는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요단 서편의 31왕은 다 몰살당합니다.

우리는 그 왕과 족속들을 죽인 사건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죽임당한 사람들의 특성은 최소한 자기 일에 한해서 스스로 '조용히 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수하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자들을 다 진멸하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시는 현장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에서 31명의 왕을 죽인 이야기 앞에 요단 동편 정복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된 복지도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복

지는 북쪽의 갈릴리호수로부터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사해를 이루는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영입되면서 두 왕이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요단 서편에서는 우두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영역에서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지역입니다. 왕의 자기 영역은 다스리는 통치권 전체, 사람들의 자기 영역은 자기 가정, 부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그 영역에서 모두 다 '조용히 하라'를 외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뜻하는 바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기도 하는데,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온갖 기적을 나타내면서 요단 동편 건너편의 길갈까지 들이닥쳤고, 요단 동편의 왕을 죽이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아직 전쟁 전입니다.) 여기까지 요단 동편과 요단강 도하가 뜻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줄 알고 마음이 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조용히 하라'를 외치며, 왕처럼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파늑대와 같이 스스로 침묵하는 자가 되라'고 최후통첩을 주신 것입니다. 그 최후통첩을 라합과 기브온 성읍의 거주민들은 받아들였지만, 다른 왕들은 이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이야기와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의 침입을 받는 것을 요단 동편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일로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로 여기게 하시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파늑대와 같이 우두머리 자리에 있지만 31명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서 조용히 할 수 있겠니? 조용히 하면 살고 너희가 계속 너희 입으로 조용히 하라를 떠들면 죽는다.'는 최후통첩을 주신 사건인데, 그 사건 앞에서 '당신이나 조용히 하라'며 하나님께 대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자 원하십니까? 십자가 생활화에는 두 방향의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세상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세상살이를 하는 고깃덩어리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한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자꾸 거지처럼 침을 흘리며 이 세상 것을 얻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이 땅을 향해서는 알파늑대처럼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에 의한 느낌으로 '좋다, 나쁘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두머리 자리에 있을지라도 침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장과 믿지 않는 동료들로 가득 찬 회사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용히 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꼭대기 자리에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혼자 믿고 있다면 내가 꼭대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늑대와 같이 스스로 입을 다무는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왕들의 죽임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판당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인구원론'이라는 이단 사상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죽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에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고깃덩어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파늑대의 침묵이 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면서 나타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조용히 하라'는 외침이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랑하셔서 오셨고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본성이 죽지 않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매순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